

## 의사당 내 인종차별 연방대법원장 흉상 마침내 철거



▲미 의사당에 설치된 로저 테니 흉상.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사당 내에 설치된 인종차별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의 흉상이 마침내 철거된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상·하원에 설치된 로저 테니 전 연방대법원장 흉상 철거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12월 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마침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철거는 법안이 발효된 후 4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해당 흉상은 미국의 최초 흑인 대법관으로 민권운동에 앞장서 온 더곳 마샬 전 대법관으로 대체된다.

미국의 5대 연방 대법원장인 로저 테니는 1857년 드레드스콧 판결에서 흑인은 시민이 아니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테니 흉상 철거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공화당의 반대에 무산됐다.

2020년에도 테니 등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한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에서 처리가 막혔고,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하원 문턱은 넘었지만 상원에서 좌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버진 아일랜드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 법을 포함한 기타 법안들에 서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민자가 미국 내 혁신의 36% 이뤄내”

미국에서 지난 30여 년간 이민자 출신 혁신가들이 혁신 창조 능력에서 미국 태생보다 뛰어났다는 경제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BER이 1990년 이후 특허의 숫자와 경제적 가치, 인용 횟수 등을 계량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미국에서 이뤄진 혁신의 36%가 이민자에 의해 창출됐다.

이 같은 혁신을 이룬 이민자가 과학자나 발명가 등 미국 내 전체 혁신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쳐 이들의 수적 비중에 비해 창조해낸 혁신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체 특허의 약 23%를 직접 만들어냈으며, 미국 태생 혁신가들의 연구 결과에 간접적으로 공헌한 경우도 13%였다.



▲LAX 공항에서 미국 입국심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sutterstock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이코노미스트 사이 번스타인은 “미국에서 이뤄진 혁신의 3분의 1 이상이 이민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이고 평가했다.

특히 고숙련 이민자들의 기여는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해 이들은 기술과 의학, 화학산업 등에서

매우 중요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놓았다. 또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혁신가들보다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다른 이민자들과의 협업 경향이 컸다.

이들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해외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도 많이 함으로써 해외 지식의 미국 유입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분석됐다.

## 지난해 미국 총기 사고 사상 미성년자 6천 명 이상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미성년자가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연합뉴스'가 ABC 방송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는 지난 2022년 미국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6천23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1년에 총격으로 사상한 미성년자 5천 708명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GVA가 2014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 기록이다.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 미성년자는 2014년에는 2



▲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진행된 총기 폭력 반대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 사진=연합뉴스

천859명이었다. 8년 만에 사상자가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2022년 총에 맞아 숨진 미성년자는 총 1천629명이다. 이 중 11세 이하 어린이는 306명, 2~17세 청소년은 1천 323명이다.

2022년 5월 텍사스주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범이 쏜 총에 어린이 19

명 등 21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다. 또 미주리주 캔자스시에서는 성탄 전야인 지난 24일 우발적인 총기 사고로 3세 여아가 사망했다.

가장 나이가 어린 희생자는 생후 5개월 된 여아로, 지난 6월 시카고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총격범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 날말퍼즐 정답

		1	다	반	2	사		3	차	감	
	4	야	산		5	교	6	재	비		
		영						택			
7	독	지	8	가		9	통	근		10	맹
	채		11	타	박		12	무	13	착	위
			부							설	
		14	불	타	15	기		16	곡	차	
17	진	가		18	한	나		절			

### 1453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8에 있습니다)

3		4			9		8	
					6		4	9
8			4		5			7
		1			5			8
					9	6	1	7
5	7			8				
	4	5						3
	2			5	3	7		
			1		4		8	